

“국악 본고장서 배운 사물놀이 러시아에 전파”

진도 국악원 찾은 러 극동연방대 연주단 ‘해동’ 지도 송지나 교수

“세계 여러민족이 모여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국 전통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

다.”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의 항만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현지 대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가 있다. 이들은 각종 문화행사를 빼놓지 않고 공연을 펼치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러시아 국립극동연방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 ‘해동’(海東) 단원 23명과 송지나(여·65) 지도교수가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을 찾았다. 벌써 5년째 이곳에서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995년에 ‘사물놀이 연주단’을 만들었는데, 5년 전부터 이름을 발해(渤海)의 동쪽을 뜻하는 ‘해동’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고려인 학생 4명과 현지인 학생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30명이나 됩니다.”(송지나 교수)

송 교수는 고려인 3세대. 하바롭스크 문화예술대에서 무용을 전공했던 그녀는 1975년 아버지의 권유로 국립극동대(국립극동연방대 전신)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후 1995년 단과대학으로 ‘한국학대학’이 설립되면서 한국어교수로 일하고 있다.

“무용을 전공한 저에게 아버지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라고 권유하셨죠.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자부심을 잃지 말라면서요.”

“해동”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아마추어 사물놀이 연주단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2013년에는 러시아 전국 아마추어악단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해동은 지역 행사에서 초청 1순위다. 200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시베리아 횡단철도

고려인 3세로 무용·안무 전공

아버지 권유로 한국문화 배워

“한국서 공연 하고 싶어요”

10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해동’의 탄생배경에는 ‘사물놀이’가 있다. 극동연방대에 처음으로 한국학대학을 개설한 고려학술문화재단 정지혁 회장이 송 교수에게 사물놀이 악기를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 회장은 “사물놀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적절한 도구”라며 악기를 건넸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몰랐지만, 그때부터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사물놀이패 활동은 쉽지 않다. 우선 대학에서 ‘한국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러시아의

전통 춤을 배우는 동아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대조된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해동’은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재정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국립남도국악원의 초청은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 국악의 본 고장에서 연주는 물론, 장구춤, 북놀이, 한국전통 문화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교육원에 도움을 요청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강사파견은 물론 초청도 해줘 큰 도움을 얻었죠. 또 한·러예술협회 이세웅 회장의 지원 덕분에 좋은 기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진도를 찾은 ‘해동’ 단원 중에는 고려인 학생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고국이자 사물놀이의 본고장에서 연주 받는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러시아 학생들도 남도국악원에서 배운 세배와 전통놀이 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러시아 국립극동연방대학교 사물놀이패 ‘해동’의 지도를 맡고 있는 송지나(왼쪽) 교수와 단원들이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을 방문해 사물놀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있다.

송지나 교수는 “오는 설날에는 고려인 협회 초청을 받아 아시아 국가들의 총영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공연을 펼칠 것”이라며 “고국에서 많이 배우

고 얻어가는데, 정작 고국에서 공연 할 무대는 좁다. ‘해동’이 한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현장에서선 당당하게 가정에선 행복한 기자 환경 조성”



제40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식 … 장필수 회장 취임

제40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장필수·광주일보 사회부장) 출범식이 20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5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처, 박지원·박혜자·강기정·이개호 국회의원, 박준영 신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기자회견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식전공연인 월드뮤직앙상블 ‘필리아’의 연주, 내외빈 소개, 협회장 인사말, 기자회견 임원 소개,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인사말에서 “40대 기자회견은 현장에서는 당당하고, 가정에서는 행복한 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취재 현장에서 만날 때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더라도 일이 끝나면 어깨 결고 막걸리 잔을 기울

이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경선에서 ‘우리는 기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부터 기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자는 의미”라며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신문·방송·통신 등 전통매체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2년 동안 협회를 이끈 구길용 제39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청렴 수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Clean Up)을 광주 최초로 도입했고, 한국투명성기구와 산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광주시 북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사진)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공직사회 청렴 의식·문화 개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도 개선 등 8개 부문 20개 과제 25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으며, 북구는 대부분 평가항목에서 1위에 올랐다.

북구는 지난 한해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광수(광주일보 광전지국장)·전애란씨 장남 대환군 이대현·이희숙씨 장녀 정민양=23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시 중구 중립동 약현성당.

▲이종원·윤금자씨 장남 용우군 김영환(광주시 남구 기획실장)·이미숙씨 장녀 시양양=30일(토) 오후 1시30분 인천시 중구 신흥동 그랜드호텔 웨딩의전당 본관 컨벤션홀, 피로연 22일(금)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주웨딩스튜디오(구 삼목회관) 4층 에비뉴를 연회장.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여성회장 이보희) 이화월례회=22일(금)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062-225-5636)

▲하동정씨 장령공파 종회(회장 정이현) 임원·교문·자문위원·운영위원 연석회의=22일(금)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유

동 해태회관(구 아세아극장 인근) 062-511-8173.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강당 062-653-0369,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동문회

▲조대부중 32회 동창회(회장 박기수) 겨울 정기모임=22일(금)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서동 민물어촌 062-675-1750.

알림

▲정율성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강원구) 신년임원회의 및 기념공연=22일(금)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동구 히딩크호텔 6층 대강당, 문의 010-9279-130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금·토·일·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숨지기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요양보호사 구비교육생=신규반, 일반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매시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등

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장재가 정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謹 301호 故최병득 님 (남/83세)		401호 故강준휘 님 (남/53세)	
子/子婦 : 최윤곤/정정애, 형곤/강정희, 관곤/이혜영	女/婿 : 김지혜/지은, 지효	子/子婦 : 최윤정/조정훈, 은정/구민영, 미정	女/婿 : 서유나
未亡人 : 김성자	未亡人 : 김남희	未亡人 : 서유나	未亡人 : 서유나
•발 인 : 1월 21일	•연락처 : 227-4382	•발 인 : 1월 22일	•연락처 : 227-8383
•장 지 : 장성삼계선영		•장 지 : 영락공원	
402호 故윤정환 님 (남/61세)		102호 故최석관 님 (남/57세)	
子 : 윤지웅	未亡人 : 김순옥	子/子婦 : 최윤정/조정훈, 은정/구민영, 미정	女/婿 : 서유나
女 : 윤하린	未亡人 : 김순옥	未亡人 : 서유나	未亡人 : 서유나
•발 인 : 1월 21일	•연락처 : 227-4314	•발 인 : 1월 21일	•연락처 : 227-4000
•장 지 : 담양 천주교묘역		•장 지 : 영락공원	

孝 金 浩 正 禮 式 葬

마 음 까 지 믿 어 주 십 습 니 다

문 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